

데스크 시국



박석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들로 법원은 쑥대밭이 됐다. 21세기 민주국에서, G10(주요 10개국)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다. '12·3 비상계엄'부터 최근 일련의 폭동은 나를 선진국이라 믿었던 우리들의 자긍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다.

작금의 어지러운 시국과 맞물려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게 된다. 잠시 시계를 돌려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을 가보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손바닥에 '왕(王)'이라는 한자를 쓰고 토론회에 나왔다. 윤 후보는 "우리 아파트에 다니는 몇 분이 써 줬는데 차에서 지우려 했지만 안 지워졌다"며 야권 등에서 제기한 '주술'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추미애 예비후보는 "손바닥 '왕(王)' 자는 주권대민을 찬탈하겠다는 역모의 마음이 일제같지 않았고 그가 정치검찰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인간의 심리 조종한 마녀들

'부적', '주술' 등은 윤석열 후보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전임 대통령 박근혜의 몰락은 '최소한 게이트'가 단초가 됐지만 이면에는 주술로 대변되는 부적, 구 등도 한 요인이었다. 당시 영국 BBC방송 등 주요 외신들은 '사머니즘과 관련된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을 위협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은폐칼럼



고성혁 시인

2024년,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되고 남을 지난 12월 14일 오후 5시, 밥집이었고 이른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이미 많은 사람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던 것은 국회에서 행한 2차 탄핵의 결과 때문이었다. 그 떠들썩한 식당에 별안간 '윤석열 탄핵' 피켓을 든 백발의 늙은 부부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눈길이 대번에 쏠렸다. 아내의 친구와 그 남편,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이들이었다. 쏟아지는 환호성에 얼떨떨하던 그들이 양손을 들어 올리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이어졌다. 칼바람에 머리칼이 뒤엉킨 채 땀방울이 맺힌 두 얼굴. 그분들의 손을 붙잡자 얼음처럼 차가운 감촉이 머리를 타고 흘렀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손바닥으로 마른세수를 하던 나는... 내가 너무나 염치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피로 얼룩진 80년의 오월과 망월동에 남겨진 만장 등... 그 후 어쩌다 근무하게 됐던 도청에서 날마다 바라보곤 했던 벽과 벽 사이의 무수한 탄흔. 그날을 증언 하듯 서 있던 정문 옆 은행나무와 의회 앞 회화나무, 오월이면 성난 시민들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던 육중한 철제 정문의 빼개던 소리. 그 광경을 잊고 살다니. 이

기고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

설 명절은 유난히 고향과 가족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특별한 시간이다. 어릴 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나눠던 따뜻한 한 끼, 딱딱한 그릇 고향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지던 정다운 인사말은 명절이 되면 더욱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 순간들은 고향과 가족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일깨워준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가슴 아픈 일로 우리 모두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분들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향한 배려와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 참사 이후,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음을 나누며 아픔을 함께했다. 그 결과, 무안군에는 이틀 만에 1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모였다. 이 기부

'맥베스'와 '소년이 온다'가 환기하는 것

서양에도 우리의 사머니즘과 같은 의미의 주술사가 있다. 초자연적인 존재와 연계된 주술사는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모티프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맥베스'는 주술사와 연계된 희곡이다. 야망에 노예가 된 인간의 파멸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렸다. 특히 마녀들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부추겨 인간의 행위와 심리를 교묘히 조종한다.

희곡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렇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맥베스와 벵코 장군에게 세 마녀가 다가온다. 마녀들은 멀지 않아 맥베스가 왕이 되고, 벵코 자신도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승리의 전갈을 받은 왕은 친히 마중을 나온다. 연회가 빠질 수 없다. 그날 밤 맥베스 부인은 마녀들이 남편에게 했다는 은밀한 예언을 듣게 된다. 부인은 마치 자신이 왕이라고 된 것처럼 짜릿한 흥분을 느낀다. 함께 왕을 죽이기로 도모한 것은 당연지사. 그녀는 맥베스에게 '연회장에 가서는 걸으라는 쫓겨봄 보이도 속에는 독사를 숨기라'고 조언한다. 부인의 계략과 마녀들의 예언이 맞물려 결국 왕은 맥베스 손에 죽임을 당한다.

권력을 찬탈한 맥베스와 부인은 한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버려줄 게 없다. 그러나 불쑥불쑥 밀려드는 두려움까지 피할 수는 없다. 세 마녀가 했던 예언, 즉 벵코우 자식이 왕이 된다는 말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힌다. 맥베스와 부인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왕위가 벵코우 가문에 돌아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했다. 자신들이 왕을 죽이고 권좌를 빼앗은 것처럼 벵코우 자식도 똑같이 자신들을 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맥베스와 부인은 자각을 보내 계획대로 벵코우를 죽이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벵코우 아들은 이들의 계략을 눈치 채고 도망을 친다. 이후 맥베스는 벵코우 명령에 시달리고 점점 불안의 늪에 빠진다. 그러는 중에도 이들은 마녀들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전이 빛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 그 가치를 발하기

때문이다. '맥베스'는 지금의 시국과 비교하면 유사한 면이 많다. 인물과 권력 관계를 비롯해 주술, 경쟁자 등이 그렇다. '죽이고 싶을 만큼' 경쟁자에 대한 강렬한 질투는 욕망의 화신이 만들어낸 망상에 다름 아니다. 맥베스와 부인은 결국 부수를 넘는 욕심과 주술에 사로잡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폭압과 참극의 80년 5·18이 재연되었는지 모른다. 12·12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가 자행했던 무자비한 학살 만행은 광주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은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낭보가 전해는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인간은 이토록 폭력적인가'

역설적으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이번 비상계엄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도한지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강은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쓰게 된 배경 등을 이야기했다. 열두 살 무렵 아버지 서가에 꽂힌 '광주 사진첩'을 보고서였는데 사진첩에는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시민들, 학생들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참혹한 사진을 본 이후 작가의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자리잡았다.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한강의 물음이 다시 떠오른 것은 시위대에 의해 자행된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보고서였다. 자유와 평화는 어떤 이념이나 주의 주장에 앞서 지켜져야 할 가치다. 계엄사태 '내란 우두머리'가 권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주술적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 '맥베스'의 비극은 이성과 합리, 시스템을 무력화했던 주술 때문이었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염치없는 인생이었다

제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느님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사실오 년 전 그때 말단공무원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며 눈을 감은 채 로부터처럼 살았던 나를 상기하노니 내 인생이야 말로 허수아비와 진 배 없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염치였고 내 삶은 하접쓰레기였다. 그렇게 살아온 칠십년. 젊을 때부터 민주화에 몸바치다 감옥에 가고, 해직교사로 떠돌던 그들은 그 시절과 다름없이 칼바람 부는 겨울 광장에서 시린 몸으로 목청껏 탄핵을 외쳤는데 나는, 그렇게 남의 머슴처럼 살아 이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이런 불온한 세상과 맞닥뜨려 그동안의 삶에 한 점 그나마 없이 끄덕끄덕 따뜻한 밥집에 앉아 기다리고만 있었다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런 사이, 나만 모르고 비무역을 강아지처럼 대문간에 숨어 바깥 동태를 살피는 사이, 세상은 아름답게 진보해 있었다. 구백 명의 5·18 증언을 한 달간 매일 아침 시간씩 읽어 완독하고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는 그 뒤에에도 3년 동안 제주에 살면서 4·3을 손금처럼 파악한 뒤 '작별하지 않는다'를 썼다.

화양병에서 촛불, 그리고 응원봉으로 무기를 바꾼 시대를 앞선 청년들은 '고양이발바닥연구회' 혹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들의모임' '전국난민사랑회지원맹' '6호선을타는사람들의모임'이라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지 넘치는 이름으로 여의도의 헬기와 장갑차를 뚫고 기어이 탄핵을 얻어냈다. 영하의 날씨에도 남태령 트랙터 시위를 도와 경찰배스를 뚫고 용산까지 행진한 젊은이들과 그 와중에도 추위에 떠는 시위 참가자

들에게 커피를 선결제한 이름 모를 경찰관... 이 뉴스에 달린 '도대체 왜 세계는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동시에 아름다울까?'라는 댓글에 나는 기어이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5·18의 새벽, 도청 옆 YWCA에 남아 있다가 죽은 박용준 열사의 일기를 본 한강 작가는 그의 뜨거운 외침에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벼락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삶은 쉬운 게 아니다.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죽을 힘을 다할 때야 비로소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12·3 내란 뒤 5·18을 상기하는 글의 '고립된 상태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내 인생 전체를 이분뜰게 빚졌다'라고 쓰인 댓글을 마주하고는 결국 뚝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 말인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세월은 또 어떻게 흐르는 것인지... 하지만 '눈먼 무사-얕은뱅이 주술사'와 무도한 내란 음모세력들이 여전히 중용하고 법원을 침탈하는 세력까지 출몰하는 지금, 생각만으론 이 커다란 불의를 감당할 수 없다. 늙은 몸이라도 함께해야 한다. 다가오는 봄에도 이 땅의 나무들은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야 한다. 언제나처럼 강물은 출렁이며 흘러야 한다. 비록 산화된 쇠처럼 무더지고 녹슨 몸이라도 저 아름다운 청년들이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게 눈이라도 치우고 길이라도 쓸 것이다.

설 명절, 고향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다

는 어려움을 겪는 고향을 향한 애정과 연대의 가치를 증명한 감동적인 사례였다.

전남도는 고향에 따뜻한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고향사랑의 길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87억원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는 55만 명의 회원과 550개소의 할인가맹점을 확보하며, 도민과 출향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5년에는 사랑에 서포터즈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MZ세대와 수도권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SNS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편리함을 더할 것이다. 서포터즈 플랫폼은 단순한 가입을 넘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 도내 축제·행사 소식, 할인가맹점 정보까지 제공하며 고향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될 것이다.

전남도는 서포터즈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가길 것이다.

또한, 전남도와 할인가맹점 간 협력을 강화하여 고향사랑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사랑에 서포터즈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서로를 돕고 고향을 지키는 연대의 활동이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이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통해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남도는 올해 서포터즈 회원 67만 명 달성 및 1000개의 할인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여러분과 함께 걸음을 이어가겠다. 사랑에 서포터즈는 여러분의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그 마음이 고향과 지역사회에 온기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번 설 명절,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이 고향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고향에 대한 마음이 모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며, 고향에 대한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에 더 큰 기쁨과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

社說

탄핵 정국 틈탄 설 물가 심상치 않다

탄핵 정국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을 앞두고 물가마저 뛰고 있어 서민들의 삶이 고달파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도 물가관리에 온 힘을 쓰고 있지만 혼란한 정국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유가와 커피 값, 외식비, 영화 관람비 등 모든 분야의 물가가 오르고 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유가는 이미 8당 1800원을 넘어섰고, 전국에서 유가가 가장 저렴한 광주·전남지역도 8당 1700원대를 돌파했다. 문제는 이 같은 휘발유값의 고공행진이 국제 유가의 흐름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회사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여기에 직장인 대다수가 하루 1-2잔을 즐기는 커피값마저 지갑을 얇게 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설 연휴 직전인 24일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한다. 최고 인기 품목인 아메

리카노(톨 사이즈)는 4700원에서 200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여러 브랜드의 커피들도 음료 값을 인상할 예정이고, 이번에 인상하지 않는 브랜드들은 이미 지난해 연말 가격을 올린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 형태의 카페들도 커피값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외식물가는 이미 천장이 뚫린 지 오래다. 김밥과 삼겹살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도 자고 나면 올라 '런치 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가장 부담 없이 즐겼던 문화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관람료도 오르고 있다. 심지어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작은영화관'도 인상 대열에 합류해 최근 담양군은 관람료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곡성군은 모든 영화를 1000원씩 인상했다.

정부와 여야는 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물가만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지각 판결에 현장 관계자만 유죄라니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 관련 1심 판결이 사고 발생 2년 8개월만에 나왔다. 피고인 20여명 가운데 원청과 하청사 경영진은 무죄를 받은 반면 현장 관계자들은 줄줄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그제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본부장, 하청업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이파크 총괄 현장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담당하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전국적인 충격을 안긴 대형 사고였다. 현대산업개발은 화정동 사고 불과 7개월 만에 학동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력이 있는 회사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경영진에게 사법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 사고라지만 수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인데 경영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고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지연 판결에다 현장 관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판결은 국민들의 법 감성에도 맞지 않다. 사법부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거기에 맞는 양형을 하는 데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관계자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모든 일이 경영진의 관리 감독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다. 관리가 많은 경영진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이 선진국일 것이다.

無等鼓

요즘 유행하는 '멍'은 인간의 본성인 보는 행위와 관련이 깊다. '본다'라는 것은 모든 동물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일반적으로 동물은 잡아먹기 위해서나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데 이를 뜻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인간의 본다는 개념은 다른 동물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인간의 개념에 다가가면 호미로 찌르는데도 '볼(시선)'은 생존과 연결되지만, 다른 동물과는 달리 '즐거기' 위해서도 보는 경우가 있기 때

한데 요즘에는 구경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간절하게 바라보는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로 '멍이 사용되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등 마는 등 하는 심리적 상태를 뜻하던 것이 바뀐 일상의 현대인들이 모든 것을 잊고, 그저 하염없이 땀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불명과 물명에 이어 새명, 여기에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바라보는 '유물멍'까지 멍의 세계는 끝이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 '싸움멍'이라는 말이 뜨고 있다고 한다. 보수와 진보, 좌우로 나누는 싸움에 극에 달했고, 이 것들이

싸움멍

태클비전으로 생중계되면서 나온 신종 멍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반강제적이며 힐링보다는 스트레스에 가깝다는 점이다. 동물과 동물, 사람과 동물도 아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을 멍하니 온종일 봐야 하니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그 천박함이 낮이 뜨거울 정도이니 괴로운 현실이다. 재미있는 스포츠도 아니고 이를 언제까지 멍하니 하염없이 봐야 하는 것일까.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for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 note about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journalism.